



濁流清論

제28호 2013년 11월 13일(수)

발행인 : 김호섭 / 편집 : 편집위원회

<알려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접수하실 원고를 교수회 이메일 (juok@ajou.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탁류청론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위의 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 차 >

특집 : 연구년 제도 개선	1
특집 : 연구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교수회 연구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	5
소통과 담론 : 스무살에 대한 단상	11
교수들의 건강칼럼 : 이석중-명의를 만드는 병	13

28호 특집

연구년 제도 개선

전자공학과 윤원식

본 글은 전기 교수회 연구년 제도 개선 위원회 (이하 연구년 위원회) 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 교수회 연구년 위원회에서 국어국문학과 조광국 교수님과 법학전문대학원 윤성승 교수님과 함께 준비하였다. 상당한 내용을 전기 연구년 위원회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갱신한 바, 지난 연구년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현재 우리 학교는 지난 2001년부터 근 11년 동안 시행되었던 6개월 연구년 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되어 3년 근무후 6개월 연구년을 갈 수 없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전기 연구년 위원회에서는 연구년 제도 변경에 따른 교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2011년 12월 15일부터 31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86명의 교수로부터 설문결과를 얻은 바 있다. 지면상 주요 내용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1은 6개월 연구년 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결과로 압도적으로 6개월 연구년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6개월 연구년 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인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98.8%임을 알 수 있다.

2페이지에 계속

찬반여부	인원	백분율
반대	85명	98.8%
찬성	1명	1.2%

<표 1> 6개월 연구년 제도 폐지 찬성여부

표 2는 선호 6개월 연구년제 형태에 대한 설문으로 3년 복무 후 6개월 연구년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으며, 신입교수에 한하여 제한을 두고 자유롭게 하자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아서 41.9%를 차지하였다.

선호 6개월 연구년제 형태	인원	백분율
모든 연구년 신청 가능 교원이 자유롭게 6년 복무 후 1년 또는 3년 복무 후 6개월 연구년제 선택 가능성 부여	43명	50.0%
신임교수에 한하여 6년 복무 후 1년 연구년제를 실시하고, 그 후 연구년부터는 6년 복무 후 1년 또는 3년 복무 후 6개월 연구년제 선택 가능성 부여(최초 연구년에만 6년 복무 후 1년 연구년제 적용)	36명	41.9%
잔여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교원에 대해서만 3년 복무 후 6개월 연구년을 폐지함 (마지막 연구년에만 3년 복무 후 6개월 연구년제 폐지)	6명	7.0%

<표 2> 선호 6개월 연구년제 형태

다음으로 표 3은 6개월 연구년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인 87.2%가 개인 연구계획에 따른 자율적 연구년 형태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선택했으며, 그 다음의 이유들은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응답을 보여주었다.

3년 복무 후 6개월 연구년제 필요 이유	인원	백분율
개인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주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5명	87.2%
대학원생 유치 및 대학원생 지도시 발생하는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26명	30.2%
학문의 변화속도와 변화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최신 연구 성과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35명	40.7%
1년의 공백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예방(프로젝트 및 연구과제 수행시 어려움 등)	33명	38.4%
동일기간 연구년 희망자가 단과대학 연구년 인원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39명	45.3%

<표 3> 3년 복무후 6개월 연구년제 필요 이유

이상의 교수 구성원의 의견을 비추어 볼 때 6개월 연구년 제도의 부활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근 11년간 실시되어 온 6개월 연구년 제도의 활용도를 표 4에서 알 수 있다. 상당한 교수가 6개월 연구년 제도를 활용한 바, 그간 6개월 연구년 제도는 유용한 제도로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간	3년 근무 / 6개월 연구년	6년 근무 / 12개월 연구년	계
(2001년~2011년)	100명	253명	353명

<표 4> 연구년 실시 현황

이제 타 대학도 6개월 연구년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타 대학 연구년 규정을 조사하였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본교와 평가순위가 비슷하거나 상위에 있는 대학과 기타 수도권 소재 주요대학으로 구성된 총 15개 대학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대학의 성격이 매우 다른 한국과학기술원, 포스텍은 제외하였고, 기타 수도권 소재 주요대학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하는 단국대, 세종대, 명지대, 경기대를 포함시켰다.

학교명	6년 근무 1년 연구년	3년 근무 6개월 연구년	최초 임용시 최소 근무 요건	정년 퇴직까지 잔여 기간
서울대	가능	가능	—	—
연세대	가능	가능	3년 이상	3년 이상
고려대	가능	가능	3년 이상	1년 6개월 ~ 3년 → 6개월 이내
성균관대	가능	가능	3년 이상 부교수 이상	4년 이상
경희대	가능	가능	3년 이상 조교수 이상	—
한양대	가능	가능	6년 이상	—
서강대	가능	가능	6년 이상	—
중앙대	가능	가능	6년 이상	3년 이상
인하대	가능	가능	3년 이상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이화여대 (수업경감 연구년제시행)	가능 (2년 이내 두 학기로 분할 시행 가능)	3년 6개월 근무 → 6개월 가능	3년 6개월 이상	—

학교명	6년 근무 1년 연구년	3년 근무 6개월 연구년	최초 임용시 최소 근무 요건	정년 퇴직까지 잔여 기간
건국대	가능	가능	5년 이상	4년 이상
단국대	가능	가능	6년 이상	—
세종대	가능	가능	6년 이상 부교수 이상	3년 이상
명지대	가능	가능	6년 이상 부교수 이상	3년 이상 (교무위원은 예외)
경기대	가능	가능	6년 이상	연구 기간의 5배수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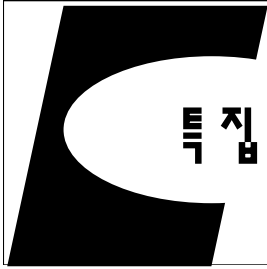
<표 5> 타 대학 연구년 규정

※ (주) 빈 칸은 수집된 자료가 불충분하여 확실하지 않음.

조사대상 15개 대학 모두 6개월 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화여대에서는 1년 연구년의 경우 2년 이내에 두 학기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까지 열어 놓고 있으며, 2013년 2월 28일 교수 연구년제 규정 개정에서 수업경감 연구년 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1년 연구년인 경우 4학기 동안 책임강의시간의 2분의 1을 경감 받으며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며, 6개월 연구년인 경우 2학기 동안 책임강의시간의 2분의 1을 경감 받으며 강의와 연구를 수행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이 다수 있지만, 이 대학들이 하버드 대학과 비교하여 범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는 하버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부금이다. 지난 경제위기로 인해 기부금 손실이 있어 그 액수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회계연도 2011년도 기준으로 \$32 Billion (약 34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대학의 지출은 2010년 회계연도 기준 \$3.7 Billion 이라고 하니 보유 기부금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은 재정뿐 만 아니라 대학의 탁월한 규정 및 제도라 할 수 있다. 6개월 연구년제 부활 및 연구력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되는 수업경감 연구년제도 등 유연한 연구년 제도의 신설 및 개정이 바로 필요하다. 시대를 리딩하는 통찰력 있는 새로운 규정 및 제도가 아주비전 2023의 첫번째 핵심지표인 국내 Top 10 재진입 (2008~2015) 에 일조하리라 생각된다.



연구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교수회 연구 위원회

활동 중간 보고

교수회 연구위원회 (대표집필 : 김상배, 전자공학과)

1. 들어가며: 연구 교육 이분법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각종 대학 평가가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구실적의 서열이 곧바로 대학의 서열로 이어짐에 따라 연구실적을 둘러싼 대학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학은 이 경쟁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이러한 현상은 이공계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공과대학으로 출범한 우리에게서는 치명적인 일이다. <표1>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2011년 평가에서 10위 대학의 논문편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우리대학 순위의 급격한 하락이다.

년도	2006	2007	2009	2010	2011
우리대학 논문순위	15	13	14	17	22
우리대학 논문편수	0.95	0.95	1.15	1.04	1.15
1위 대학 편수	3.74	3.6	3.92	3.67	3.38
10위 대학 편수	1.46	1.24	1.37	1.20	1.66

<표 1> 연도별 과학기술 교수당 SCI 논문 게재 편수 순위 (중앙일보 평가 자료)

<표 2>는 연구와 관련된 세부 지표별 2012년 평가결과이다. 논문의 질을 나타내는 논문 피인용수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연구의 양적 질적 수준 모두가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지표	종합	외부 연구비	자체 연구비	인문사회 국내논문	국제 학술지	교수당 피인용수	지적 재산권	기술이전 수입
순위	22	23	39	65	17	33	27	16

<표 2> 연구평가 지표별 우리대학의 순위 (2012년 중앙일보 평가 자료)

전통적으로 우리 대학은 교육을 중시한다. 그러므로 연구 부문에서 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연구 경쟁력 순위의 급격한 하락은 (국제 학술지 논문 순위도 2013년에는 19위로 밀려남) 우리대학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교육과 연구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는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사회는 연구능력을 갖춘 졸업생들을 원하고 있다.

이공계 졸업생 채용방식을 보면 대학 시절에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주친 문제들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해결했는지를 평가한다. 졸업생의 연구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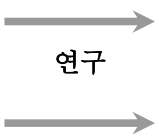
이렇듯 연구 없이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졸업생을 교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연구와 교육의 이분법은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의 산물일 뿐이다.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우리대학의 연구경쟁력 하락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 교육과 연구 경쟁력의 동반하락은 우리대학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다. 특히 최근의 가파른 연구경쟁력 하락세는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와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구위원회가 추구하는 연구체제

어느 대학이든 다양한 연구진흥 방안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안들이 모두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성공적인 방안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체제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건에 주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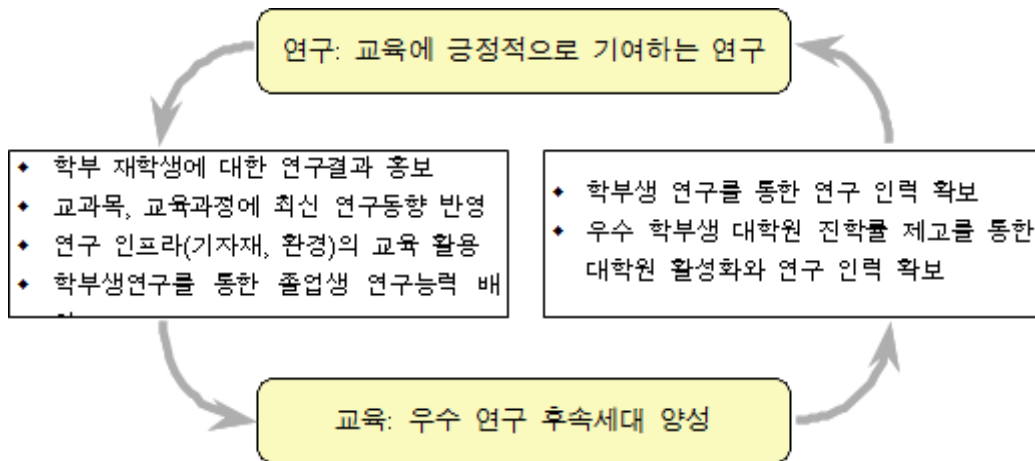
① 지속가능한 연구체제: 일시적인 연구진흥체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 사이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며 성공요소를 극대화 하고 장애요소를 극소화해야 한다.

② 영향력 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체제: 연구의 산출요소를 극대화하는 영향력이 큰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연구체제여야 한다.

투입 요소		산출 요소
연구 의욕		명성 또는 평판도
연구 조직과 인력		논문의 양과 질
연구비		경제/산업적 기여 (지적재산 포함)
연구 시설 및 환경		후속 연구비 수주
연구지원/업적평가제도		교육의 질적 향상

<그림 1> 연구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

<그림 1>에 연구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 그리고 두 요소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보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투입 요소가 산출 요소를 증대시키고 그 산출 요소가 투입 요소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한 연구체제가 완성될 것이다.



<그림 2> 연구와 교육의 선순환 구조

그 예로서 <그림 2>는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학부생에게 연구의 의미와 가치, 교수진의 연구결과들을 홍보하여 연구 마인드를 배양하고, 연구에 참여시켜 연구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우수한 연구 후속 세대가 양성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학부생들은 대학원 진학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한 대학원 활성화는 우수 연구 인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 인력이 우수한 연구실적을 내면 더 많은 홍보효과를 얻게 되어 더 많은 학부생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다. 선순환 구조의 완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체제의 완성은 궁극적으로는 영향력 큰 연구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영향력 큰 연구는 그 자체로서 지속가능한 체제 완성의 지렛대이다.

3. 연구경쟁력 증진을 위한 세부 방안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그림 1에 보인 투입 요소 모두를 망라한 방안이 연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제도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1) 연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선순환체제가 유지되려면 지속적으로 성공 요소와 장애 요소를 찾아내어 성공 요소를 극대화하고 장애 요소를 극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체제 발전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서의 성공 요소가 발전된 다음 단계에서는 장애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지속적인 연구체제 개선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대학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가 없다. 이에 연구위원회는 우리대학의 연구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연구정책을 입안, 평가, 개선하는 사령탑으로서의 연구정책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연구의 선순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2) 논문실적의 실시간 등록제도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 편수와 논문의 질이 대학 경쟁력의 기본 잣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은 논문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매년 연말이 되어 업적평가 실적을 등록할 때가 되어야 그 해의 논문 실적이 정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연구처가 연구실적 등록으로 인한 과부하로 마비상태에 이른다. 그러므로 논문 실적을 실시간으로 등록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 통계를 내어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 일에 굳이 모든 교수를 동원할 필요는 없다. 근로 장학생을 써서 우리대학 교수진의 논문을 찾아 등록하게 하고 교수진의 확인만 받는 체제를 만든다면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도 가능하고 교수진의 잡무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연간 실적 예측과 연구체제 개선의 아이디어 산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3) 조교수와 부교수의 강의부담 경감 및 승진요건 강화 방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대학의 부교수 및 정교수 승진요건은 경쟁 상대 대학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승진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원 없이 승진 요건만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연구지원체제가 아니다. 과부하에 따른 피로 누적이 정교수 승진 이후에 나타나 정교수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교수와 부교수들에 대한 강의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강의부담 경감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시간강사 담당 교과목 수와 초과강의료의 증가이다. 이 문제는 현재 지출되는 초과강의료를 사용하여 명예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 (즉 전임 교수에 지급되는 초과 강의료 제도 폐지와 이를 통한 전반적인 강의 부담 축소), 그리고 정교수 가운데 연구실적을 강의실적으로 대체하여 승격하는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승진 요건에는 논문의 양만 아니라 질적 요건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정교수 승격요건 강화 및 다양화

교수진의 근무기간을 30년으로 보면, 조교수 및 부교수의 비중이 1/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조교수 및 부교수의 연구실적만으로 연구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연구의 질과 영향력에 무게 중심을 두면 연구에 있어 정교수진의 역할은 막중하다. 더욱이 연구 없이는 교육도 잘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려하면 정교수진이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하는 체제 구축은 불가피하다.

	현행 기준	수정안
정교수 승격	-강의 부담: 연간 15학점 (초과강의료 지급) -최소 연구 실적: 연간 100점	1) 제 1 유형* -강의 부담: 연간 18학점 (초과강의료 없음, 초과강의 3학점을 연구실적 ○○○점으로 환산) -최소 연구 실적: 연간 ○○○점 (논문의 질에 대한 요건 추가) -승진 최저 요건: 연간 ○○○점, 5년간 ○○○점
		2) 제 2 유형 -강의 부담: 연간 15학점 -최소 연구 실적: 연간 ○○○점 (논문의 질에 대한 요건 추가) -승진 최저 요건: 연간 ○○○점, 5년간 ○○○점
		3) 제 3 유형 -강의 부담: 연간 12학점 -최소 연구 실적: 연간 ○○○점 (논문의 질에 대한 요건 추가) -승진 최저 요건: 연간 ○○○점, 5년간 ○○○점
		4) 제 4 유형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 -강의 부담: 연간 6학점 -최소 연구 실적: 연간 ○○○점 (논문의 질에 대한 요건 추가) -승진 최저 요건: 연간 ○○○점, 5년간 ○○○점

<표 3> 정교수 승격 요건의 유형

<표 3>은 정교수의 역할 모델의 다양화를 통하여 자발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개발한 승격요건의 유형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승진기간 동안 연구와 교육 실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 되면 승격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을 제안한다. 즉, 표 3에 제시된 유형은 표준 모델일 뿐이고 교수들은 유형에 관계없이 승격기간 안에 총점만 기준 점수를 넘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기별로 자유롭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 강의는 년 3학점으로 제한하여 강의의 질적 저하를 막으려 하였다.

이 제도 시행의 기본 전제는 전임 교수에 지급되는 초과 강의료를 없애는 것이다. 실제로

졸업학점을 120 또는 128학점으로 축소한 데에는 강의의 질 제고와 강의부담 경감을 통한 연구실적 제고가 두 개의 기본 근거가 자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 목표 모두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 초과 강의로 폐지는 교수진 전체의 강의 부담 경감과 이를 통한 연구 경쟁력 제고, 그리고 그 재원을 이용한 조교수 및 부교수 강의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전임 교수의 비정규 수업인 특수 대학원 강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수 개인별 업적 평가에는 표 3의 유형에 관계없이 기준 점수를 초과한 부분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교수 A, B 단계에서는 연구에 매진하도록 제 1유형의 선택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5) 영향력 큰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학문 영역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어느 교수 개인의 연구로는 영향력 큰 연구 수행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수한 연구 집단, 즉 우수한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규모의 공공 또는 기업 연구소의 숲 속에서 대학 연구가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대학 연구도 그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대학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ASURI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선도 연구소로 발돋움하게 하는 인큐베이션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위원회에서는 ASURI로 발전할 수 있는 중간 단계 연구소 설립과 운영 지원 체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많은 ASURI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6) 논문 게재료 지원제도 개선

임팩트 팩터가 큰 학술지일수록 논문 게재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논문의 양이 아닌 질 평가로 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때 임팩트 팩터가 높은 학술지 논문 게재를 장려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학과별로 우수 학술지를 선정하여 그러한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4. 맺음말

우리는 연구가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기업들은 졸업생의 연구능력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와 교육의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모든 교수는 퇴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연구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 사이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구체제 수립, 이를 통한 영향력 큰 연구를 목표로 하는 연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아직 완성된 안들이 아닌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이에 연구위원회는 구성원들의 많은 비평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좋은 방안을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스무 살에 대한 단상

사회학과 노명우

누구나 살면서 20대라는 생애주기를 경험한다. 그렇기에 생애주기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만 고려한다면 20대가 특별히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20대는 늘 주목 대상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10대에게 20대는 성인기가 시작되면서 금기의 모든 빗장이 풀리는 황홀한 삶의 단계이다. 그렇기에 10대는 20대를 선망한다. 허용된 것보다는 금지된 것이 더 많아 답답한 10대는 성인식을 기다린다. 그들에게 20대는 화려한 미래이다.

반면 이미 한 참 전에 20대의 시절을 경험한 사람에게 스무 살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노스텔지어를 불러 일으키는 과거의 어느 순간이다. 그 사람에게 스무 살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아련하지만 삶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과거에 대한 은유로 다가온다. 20대가 아닌 사람은 자신이 상실한 모든 것이 스무 살 시절에는 가능했다고 회상한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20대는 열정으로 가득 찼던 시기였다고 기억을 재구성한다. 정의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가장 정의로웠던 시기는 20대 이었다고 주장한다.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20대 시절은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었던 시기라고 강변한다. 20대가 아닌 사람은 자신이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을 모두 품에 안고 있던 시기로 스무 살을 기억한다.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운 좋게도 혹은 운 나쁘게도 20대를 특정한 정치적 격변과 부딪히면서 보낸 세대들이 있다. 서구의 68세대나 한국의 386 세대가 그런 경우에 속한다. 이런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사고의 관습이 있다. 이 습관에 따르면 모든 20대는 자신의 20대처럼 행동주의적이어야 하고 급진적이어야 한다. 만약 현재의 20대가 자신의 20대 시절처럼 정치적이지 않거나 행동적이지 않으면 무엇인가 문제 있다고 판단한다. 중년의 386 세대가 요즘 20대에 대해 궁금해 할 때 이미 속 마음속에는 이런 판단을 묻고 있다.

12페이지에 계속

386 중년 세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20대는 충분히 급진적이었던 정치적 시절이다. 그 사람들에게 20대는 정치적 급진성의 결정체이다. 자신의 스무 살을 정치적으로 근본적이었던 시기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20대 또한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질문을 던진다.

이들은 궁금증은 오로지 현재의 20대가 과거의 나처럼 정치적이고 급진적인가를 궁금해 한다. 그래서 인지 20대에 대한 담론은 왜 스무 살이 정치적으로 급진적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위론이거나, 현재의 스무 살이 정치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담론의 체계 속에서 현재의 20대는 과잉으로 재현된다. 과잉으로 재현되는 20대는 386세대와 68세대 특유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20대이다. 마치 스무 살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기대는 이래서 출현한다. 하지만 과잉으로 재현하고 싶은 욕망을 20대가 채워주지 못하면 바로 그 순간 20대는 힐난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과소 재현된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그들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때는 칭찬을 어떤 때는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현재의 20대에게 쏟아 붓는다.

대학만큼 20대들도 가득 찬 공간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의 20대를 각자가 경험했던 역사적 특수 경험이라는 틀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대학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누구인지 결국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항상 궁금하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에 있어서 가장 화려했던 시절로 기억되고 있는 각자의 스무 살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들을 관찰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지금 그들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공간인 캠퍼스엔 낙엽이 한 창 이고, 현재의 스무 살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그 낙엽과 ‘교류’를 하고 있다. 곱게 물든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은 2013년 ‘지금’ ‘현재’의 스무 살의 모습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절이다. 곧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고수들의 건강칼럼

이석중 - 명의를 만드는 병

이비인후과학교실 정 연훈

꽤 긴 세월을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하다 보니 하나있는 딸아이를 장인, 장모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시는 교회분이 어지러워서 입원까지 했었는데 아직도 계속 어지러워하시니, 한번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사가 조교수 시절로 ‘소아어지럼증’ 연구로 KBS 뉴스를 한참 탄 적이 있었던 터라, 저를 어지럼 전문가로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과 직접 통화 연결을 했습니다. 50대 후반 여자 분으로 2주전에 아침에 일어나다가 세상이 갑자기 돌아다고 합니다. 고개를 돌려도, 머리를 감으려 고개를 숙여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서 모두 토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에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병원 응급실로 갔었고, 1주간 입원까지 했습니다. 수액도 맞고, 약도 먹으면서, 증상은 약간 좋아졌지만 증상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머리를 돌릴 때마다 약 1분 정도 핑 도는데, 이제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척 겁이 나서 신주단지 모시듯 조심한다고 합니다.

듣자마자, 그 분에게 저희 (처가)집으로 제 퇴근시간에 맞춰서 밤 11시에 오시게 했습니다. 치료를 해드리겠다고 ... 조금은 황당해 하시는 그 분의 반응을 전화너머 알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집으로 오신 그 분을 소파에 앉았다 눕히면서 테스트를 하고, 바로 고개를 조금씩 돌리면서 그 자리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굳이 약은 안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당황하시는 모습이신데, 일어서서 가시면서 이러십니다. ‘어 이 상 한 데 요. 나 은 것 같 아 요’ 오실 때는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웠는데, 지금은 괜찮은 느낌이에요. 제가 ‘아마도 다 나으셨을 겁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다음 날 외 래 를 보고 있 는 데 ,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글썄, 어제 밤에 오셨던 분이 병이 다 나았다고, 소꼬리를 가져 오셨다. 어떻게 한 거니?’ 갑자기 명의를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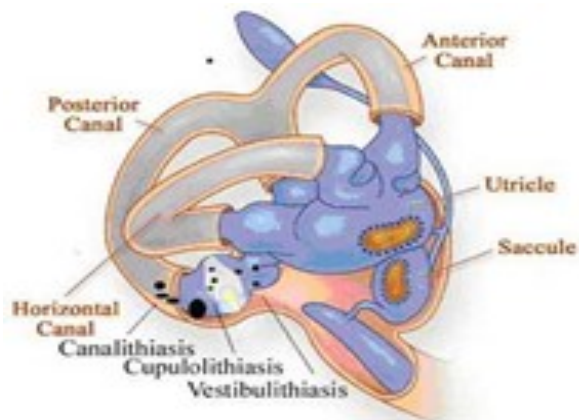
14페이지에 계속

큰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두 곳을 다녔는데도 고쳐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10분 만에 고치냐고 아주 놀라 하셨습니다. 장모님이 신이 나셨습니다. 몇 주 지나, 어지러운 지인 분을 만나 또 집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증상을 가지신 분으로 역시나 10분 안에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 분도 그 다음날 뭔가를 집으로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주변에 어지럽다고만 하면, ‘우리 사위가 잘 고친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도 없이 세 번째 집으로 모신 분은 같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것이 처방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장모님이 조금은 조심하십니다.^^

이 환자들은 증상만 잠깐 들어도 ‘이석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머리를 움직여 눈의 움직임(진탕)을 관찰하는 ‘두위변환검사’만으로 ‘이석증’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떠다니는 이석을 제 위치로 돌리는 ‘두위전환 재활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 과정이 불과 10-15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치료 즉시 환자는 고개를 움직일 때 마다 생기는 ‘핑핑 도는 어지럼’이 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에 안되고 며칠간격으로 여러번 반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증’은 어지럼증 가장 흔한 병으로 여겨집니다. 갑작스런 세상 도는 어지럼을 경험하면, 모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알고 나면 간단한 병이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경험입니다. ‘이석증’의 병태-생리 이론은 실상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돌이 귓속 세반고리관에 존재하는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세 개의 반고리관 중 어느 곳에 있는 것인지, 관속에 떠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붙어 있는 것인지, 이 모두를 구분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는 약물이 주가 아니고, 머리의 위치를 변화시켜 돌을 빼는 재활치료로 하게 됩니다.



<그림 1> 전정기관(세반고리관과 이석 기관) 구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석증이라는 병명은 없습니다. ‘양성돌발성체위현훈’이라는 병명이 정확한 표현인데, 너무나 길고 부르기 어려워서 보통 ‘이석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석증’은 담석, 요도결석처럼 몸 안에서 돌이 만들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원래 귓속에 있던 돌이 제 위치에 있지 않고 떠돌아다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림 2> 이석의 전자 현미경 소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귓속의 전정기관인데 이는 몸의 회전을 감지하는 세반고리관과 직선운동을 담당하는 이석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이 이석기관 안에 조그마한 돌들이 벽에 붙어 있어서 몸의 움직임에 따른 중력의 영향으로 기울여지면서 몸의 위치 정보를 뇌에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돌들이 떨어져서 세반고리관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잔잔한 호수에 돌 던지듯이 파장이 일어나 몸이 마치 놀이기구 탄 것처럼 도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즉, 세상이 도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원인은 외상, 두부충격, 수술, 오래 누워있는 경우, 혈액순환장애, 바이러스감염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석증은 특정 머리자세에 따라 약 1-2분간 심하게 도는 어지럼을 특징으로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에는 어지럼이 없습니다. 구역질, 구토, 식은 땀 증상 등을 동반하게 되고 1-2 주 지나면 증상이 줄어들며 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진단은 위 설명한 대로 ‘두위변화검사’로 할 수 있으며, ‘두위전환재활치료’로 치료합니다.



<그림 3> 진단 모습



아주대학교 교수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울곡관 2b3호

전화: 031)219-2240

팩스: 031)219-1b08

전자 메일: juok@ajou.ac.kr

혈액순환제 같은 약물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2-3명 중 한사람은 1-2 개월 뒤에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위전환재활치료’는 떨어진 이석을 컷속의 어느 방속에 넣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석이 처음 떨어질 때 받았던 충격 시 아직 떨어지지 않고 매달린 이석이 나중에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진단하고 치료하면 쉽게 어지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우리 몸의 신비함을 피부로 느끼는 병 중 하나입니다. 약물만 의지하다가 신기하게도 간단한 재활치료 후에 병이 없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명의로 만드는 아주 고마운(?) 병이기도 합니다.



편집위원회 : 노명우(편집책임),
구형건, 김상배, 김태승,
김혜선, 이재호